

보도시점

2023. 7. 27.(목) 11:00

배포

2023. 7. 27.(목) 11:00

농어촌공사, 수해 피해지역 복구위해 1억원 기부



<사진설명> 한국농어촌공사는 수해 피해가 발생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7일 수해복구를 위하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일상 회복, 구호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기부를 하게 되었고, 수해 피해가 극심한 경북, 충북, 충남, 전북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전국 450여 명의 임직원이 일손 돕기를 전개해 농업인 일상 회복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이상 기후로 인해 폭우·태풍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난 발생 위험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공사는 재난·재해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무인사처	책임자	부 장	송영수 (061-338-6041)
	총무부	담당자	대 리	현화경 (061-338-6048)